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린이 환경·생태학교 개강

윤 이선규 기자 | 승인 2025.04.06 12:47



[충청타임즈] 충북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협의회장 홍진옥)가 마련한 어린이 환경·생태학교가 지난 5일 개강했다.

환경·생태학교는 4월부터 9월까지 주말을 이용해 총 12회에 걸쳐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어린이 환경·생태학교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마을방과후 교실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사례교육을 통해 알려준다.

특히 호암생태전시관 주변에 5년생 금강송 소나무 100그루를 식재했으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호암지를 배경으로 자연체험과 놀이를 통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선규 기자

충주시지속가능발전協, '어린이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 이현 기자 | ☎ 승인 2025.06.26 14:33

| 자연 속 놀이·체험, 탄소중립 실천교육

충북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름방학을 맞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어린이 여름캠프'를 운영한다.

오는 7~9월 주말마다 8회에 걸쳐 열리는 여름캠프는 자연 속 놀이와 체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 지난해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회의 '어린이 환경생태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자연체험을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감축 체험 △호암생태공원 식물·곤충·조류 관찰 △목재공방 수납장 만들기 △신재생에너지 활용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봉숭아 꽃물 들이기 △충주 역사·인물·문화재 탐구활동 등이다.

캠프는 회당 20명씩, 총 1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별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협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043-855-6993)나 이메일(greencj200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홍진옥 상임회장은 "아이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이현 기자 sonarman@naver.com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 함께 어린이 환경·생태학교 개강

✎ 김상민 기자 | ⓒ 승인 2025.04.05 20:04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 함께 어린이 환경·생태학교 개강 모습(사진=충주시)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충북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협의회장 홍진욱)는 4월 9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12회에 걸쳐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과함께하는 2025 어린이 환경·생태학교가 지난5일 개강 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번째 맞는 어린이 환경·생태 학교가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마을방과후 교실 지원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사례교육을 통해 알려준다.

특히 어린이 환경·생태학교는 호암생태전시관 주변 5년생 금강송 소나무 100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호암지를 배경으로 자연 체험과 놀이를 통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충주시)

환경·생태학교 운영 과정은 주말 초등학교 과정 25명씩 12회에 걸쳐 연인원 300명이 참여해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을 주제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과 생활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체험해 보고, 목재공방으로 나무를 활용한 목각인형과 연필꽂이 만들기, 호암지 생태공원내 식물·조류·어류를 관찰하고 곤충채집 관찰, 탄소중립 실천 위해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수력발전기 만들기, 투호놀이와 윷놀이, 사방치기, 줄넘기, 다트 게임, 손톱에 봉숭아 꽃물들이기 등 전래 놀이도 함께 진행 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에 걸쳐 이어지는 과정에도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호암지를 걸으면서 산책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도 함께 실시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사진=충주시)

한편,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올해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 사업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 운동도 계획하고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어린이 집을 찾아가 페트병, 우유곽,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의 분리배출 요령을 설명하는 현장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어린이 환경생태학교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4월~5월 과정은 이미 접수마감이 되었고 6월~9월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30일까지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어린이 환경생태 학교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우리가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과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다음에도 이런 과정이 있으면 참여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진옥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어린이 환경·생태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아이들을 통해 각 가정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이 더욱 생활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문의 하면 된다.



김상민 기자 ksm3046@hanmail.net